

이원재 1차관, “일선에서의 적극 대응으로 건설현장의 정상화 이끌어내야”

- 23일 오후 국토관리청장 간담회 개최하여 지방청 독려 -

- 이원재 1차관은 2월 24일(금) 오후 1시 30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건설현장 불법·부당행위 근절대책 이행을 위한 국토관리청장 간담회를 가졌다.
-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불법·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이행을 위하여 각 국토관리청에 설치한 불법행위 대응센터의 설치 등 그간의 경과와 점검 실적 등 운영 현황을 보고 받는 한편,
 - 불법행위 대응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하였다.
- 불법행위 대응센터는 올해 상반기 동안 관계기관과의 지역협의 체계를 통한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집중하고,
 - 특히 불법행위의 표적이 되는 착공 초기 또는 골조공사 중인 공동 주택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주시하고, 의심사항 적발 시에는 즉시 수사·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.
- 이원재 1차관은 “정부 기조의 변화를 민간이 체감할 때 비로소 민간이 적극적으로 불법행위 신고에 나설 수 있다”면서, 일선 현장에서 국토관리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는 한편,
 - “불법행위가 뿌리뽑히고 건설현장이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할 것”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하였다.

2023. 2. 24.

국토교통부 대변인